

설마하다 '한 방' 먹은 새누리 ... 대선공약 뒤집을 수도 없어 '난감'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확정

여당 내부 반대 많아 내년 지방선거 실현까지 험난
민주, 정당사상 첫 '전당원투표' ... 제도화할지 주목

민주당이 당원투표를 통해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일단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서 일단 여야 협상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여야 합의 후에도 위헌성을 극복해야 할 상황이어서 제도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탄력 받나=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의 의결을 받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각각의 안을 가져와서 최종 결론을 내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앞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 정치혁신특위에서 최근 정당공천 폐지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민선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폐지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미 올해 4·24 재·보선 때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인만큼 폐지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이 공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장에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투표 결과는 투표율 51.9%에 찬성 67.7%로 민주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천폐지 결정을 못 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경우 새누리당도 공천폐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을 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여당에서 거부하는 힘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당원투표 제도화되나=민주당이 이번에도 도입한 '전(全) 당원 투표'가 앞으로도 제도화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결정을 당원들의 투표로 결

정한 것은 한국 정당사상 첫 사례다. 그 경우 새누리당도 공천폐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을 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여당에서 거부하는 힘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초 의원들 간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당원투표에

서는 3분의 2가 넘는 67.7%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당심(黨心)은 의원들의 생각과는 상당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당론 결정은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등에 집중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당원투표는 이를 전체 당원에게 돌려줘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兆 투자 물거품되나

J프로젝트 'MOU' 중국 황회해 그룹
법인설립·선도금 입금 약속 안 지켜

車부품사업 등 추진계획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개발 호재를 맞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이하 J프로젝트) 조성 사업 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10억 달러(1조1000억원대)를 투자하기로 협약했던 중국 황회해 투자주집단유한공사가 사실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도와 J프로젝트 삼포지구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황회해 그룹이 오는 27일까지 지분투자를 위한 국내 법인 설립과 선도금 500만 달러 입금을 약속했지만 전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황회해그룹은 삼포2단계 부지 내에 카지노와 호텔, 상업, 업무, 주거시설, 자동차부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삼포지구는 F1 초기 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을 비롯해 차부품단지, 호텔 등 1만여명이 상주하는 복합레저스포츠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카보 자본잠식과 국내 투자사 포기로 무산됐다. 삼포지구는 현재 F1경주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올 스톱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전남도는 중국 총대건설과 25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역시 물거품 됐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약속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계획이다.

한편 J프로젝트는 구성지구(2.96km)를 비롯한 삼호지구(8.66km), 삼포지구(4.3km), 부동지구(1.4km) 등 4곳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문서 위조' ... 광주시 공무원 결재 없었다?

안기석 국장 "컨설팅업체가 FINA에 파일 직접 제출"

정희곤 교육위원 "시 행정체계가 망가졌다는 반증"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공문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위조 스캔작업을 컨설팅업체가 직접하고, 담당 공무원은 위조된 공문서를 결재 없이 국제수영연맹(FINA) 제출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 등 위조 진실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는 결재 없이 담당직원(6급)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기석 체육U대회 지원국장은 이날 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담당 직원) 수시로(FINA측과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치 신청서 초안(PDF) 파일이 제출된 것"이라며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곤 교육위원은 "국가문서가 결재 없이 제출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체계가 망가졌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검찰에 출두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원회 직원 한모(6급)씨는 "유치신청서 초안(PDF)파일 중 정부보증을 자신이 직접 조작(스캔)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회 유치 조건을 해주는 컨설팅업체(TSE)로부터 정부보증 문서를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직접 바꾸라고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기획사측이 스캔작업을 했고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사인이 가필(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다. 한씨는 또 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시 본청 공무원(5급)과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씨가 직접 사인을 스캔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컨설팅업체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TSE는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로, 광주시는 2억여원의 용역비를 주고 조언을 받아 왔으며, 국내 기획사도 유치활동에 관여해 왔다.

한편,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유치위원회가 위조한 정부보증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최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 고발과 예산지원 철회를 밝혔다"며 "이는 국익에 반하는 조치로 정치적 배경과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다만 "정부보증서 원본 내용을 가필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t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놀고들 있습니다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국민의 편'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씻 코

뽕 코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 염막 건조 신속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인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하기의 알코올무함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스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비염 건조 증상 완화
용법·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2회 비강세척제 2회 분무사용
※연령, 용량에 따라 필요 시 용량 조정

콧속을 클린하자!
엔클 비액

콧속을 드자!
뽕 코

효능·효과/감기, 고초염, 비염, 알레르기 등 비염의 원인인 염막 건조 신속 개선
용법·용량/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용량에 따라 1일 4~6회, 양쪽 비강분사제 2~3회 분무사용

유아용 코 건강에
학생용 코 건강에
직장인 코 건강에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